

농촌공동체 활성화 유도 기대

폐지 수집 어르신 전수조사

진안군, 농식품부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 2개소 선정

진안군은 21일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내 2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구.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농업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여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유도

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선정된 곳은 '농업회사법인 자연맘'과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이다. 농업회사법인 자연맘은 용담면에 위치한 농촌돌봄농장으로 인근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농업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백운통합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은 농촌생활돌봄공동체로 마을 공동밥상 반찬 나눔과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등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번 사업 선정된 단체들은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활동 운영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진안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기존에 선정된 계속 사업자 3개소(유)농업회사법인 같이, 진안협동조합연구회, 문화공간 담쟁이와 함께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돌봄 기능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위해 3월 31일까지 진행

무주군이 지역 내 폐지 수집 어르신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폐지 수집 어르신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전수조사는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수행기관인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이 주축이 돼 진행하며 무주군은 이 조사를 기반으로 폐지 수집 어르신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무주군이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는 지난해보다 150명이 확대된 2,644명으로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2,153자리)과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공익·사회서비스형 491자리)를 통해 총 25개 사업을 추진(사업비 1백여 원)한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이은주 과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폐지 수집 노인 실태' 결과를 보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절반 이상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폐지를 줍고 있었다"라며 "이는 노년층의 빈곤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어르신들이 보다 안

전한 일자리에서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인 문제만큼 심각한 것이 또 외로움"이라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래 집단 안에서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심리적 위기 지원 체계도 마련돼 여러모로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지 수집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평균 6일씩, 하루 5.4시간 폐지를 주워 월평균 15만 9천 원(하루 평균 6,255원)을 번다. 이를 시급 환산하면 1,226원으로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임금은 월 29만 원~76만 원, 일 근로 시간은 평균 3시간으로 폐지를 수집해서 얻는 수입이나 노동 강도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다.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 김도현 관장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제는 노년층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어르신들이 보다 안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국유림관리소, 안전 기원제·규제혁신 홍보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지난 20일 덕유산 향적봉에서 2024년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ZERO화를 위해 안전기원제를 개최했으며 이와 병행하여 규제혁신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관리소 직원 일당은 안전수칙 준수를 통한 산림분야 무재해를 다짐하며 안전결의문 낭독 및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고, 등산객을 대상으로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화요일) 입장 허용 등 2024년 달라지는 산림정책 제도에 대해 홍보했다. 관리소는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과 협의체 실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등을 통해 산림사업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4년 관리소는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임도 조성, 소방사업 등 다양한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주기적인 규제혁신 활동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적극 행정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 예방방제단, 산사태예방단 등 직접일지리를 활용하여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초기대응 태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진안군은 21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법정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최근 3년 이내 집수리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자가 가구 및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임차 가구이다.

리모델링은 창호설치, 단열, 보일러 교체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또한, 주방·화장실 수리, 방범창 설치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의 안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가구는 3월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65세 이상 어르신 무릎 수술비 지원으로 웃음 되찾아

장수군, 시행 5개월여만에 39명 어르신 수술 완료

장수군은 민선8기 공약 사업인 '무릎 수술비 지원' 사업을 지난 10월부터 신규 추진해 무릎관절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고통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군은 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반영해 1년 이상의 노력 끝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장수군은 민선8기 공약 사업인 '무릎 수술비 지원' 사업을 지난 10월부터 신규 추진해 무릎관절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고통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여부를 결정받고, 수술 후 의료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최훈식 군수는 "고령화 현상에 따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곧 군민들의 행복과 직결된다"며 "특히 우리 모두 언

젠가는 나이가 들어 관절이 아픈 노인이 되는 만큼, 건강과 활력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어르신들이 웃음과 일상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20일 제1기 농군사관학교 교육형실습장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무주군, 사과원에 무인 방제시스템 도입

경영비·노동력 절감·안전성·편의성 확보 기대

무주군은 올해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사과원에 원격·고정형 방제 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1억 원(국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시설은 과원 밖에 설치한 컨트롤러에서 살포 시간과 구역을 설정한 후 스위치를 누르면 360도 수압식 회전 분무기가 작동하는 무인 방제 시스템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작동 3분 만에 0.3ha 규모의 과수원 방제를 마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람이 직접 운전·방제하는 스피드 스프레이어(SS)기에 비해 약 23%의 살포량은 23%, 살포 시간은 약 70% 이상을 단축할 수 있어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도 크다.

또 농약이 농업인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작업 안전성과 편

의성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여름철 고온기에는 방제 기능 외 미세살포를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일소과(햇살에 덴 과일) 방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장은 "사과를 재배하려면 연간 15회가량 병해충 방제를 해야 하는데 무인 방제 시스템이 부족한 농가의 일손을 돕는 역할도 특별히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가운데 있는데 공정한 심사를 거쳐 5월 내에는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농군사관학교 교육형실습장 방문

최훈식 장수군수는 스마트팜 성공적 정착을 위한 현장 실무능력 배양 및 정예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제1기 농군사관학교 교육형실습장'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 군수는 지난 20일 농군사관학교 교육형실습장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생들의 애로사항 및 현장 적응의 어려움 등 교육생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스마트팜 교육형실습장 운영 및 환경제어관리실 등 시설을 둘러보며 교육형실습 운영과정을 세심하게 살폈다.

'장수군 제1기 농군사관학교'는 지

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육생 대상으로 스마트팜 재배 이론 교육을 진행한 바 있고, 지난 16일에는 교육형실습 협약식을 체결해 6개소에 실습 대상자 18명을 배정하고 7월까지 교육형실습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군수는 "이번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스마트팜 핵심 개념과 운영 방법을 깊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길 바란다"며 "스마트팜 농업 활성화를 이룰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